

‘민간공원 의혹 수사’ 검찰 칼끝 어디까지

구속된 광주시 간부 “행정부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 진술 도시공사 간부 “광주시서 사업 포기 요청해 반납”...압력설 시사 정종제 부시장 “합법적인 행정행위 했다”...향후 수사 관심 집중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광주시와 광주지법,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도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조국 사태 이후 피의자인 권보호 조처로 심야조사(밤 9시-오전 6시) 등이 금지됨에 따라 소환조사 등 수사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일엔 공무원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에게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결과를 발표하기

도 전에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등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평소 막역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민간공원 관련 특검업체 간부와 사업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통화한 점 등을 확인하고, 일부 혐의를 확인 중이다.

이 전 국장이 구속됨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가운데 추가 구속자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전 국장은 검찰에서 “민간공원과 관련해 (정종제)행정부시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국장의 상급자였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책임자인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도시공사 임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도시공사의 한 간부는 검찰에서 “광주시에서 갑자기 사업 포기를 요청해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실상 압력설까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자로 지목을 받게 된 정 부시장은 주변에 “위법적인 부분 없이 행정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공세에 정 부시장과 이 전 국장은 이례적으로 똑같이 법무법인 이우스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사실상 공동 대응에 나서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해당 법무법인측에 “(법무법인이 같다 보니)양쪽의 진술이 맞치지는 듯 하다”며 사실상 유감을 표명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우스측은 “검찰측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5일)부터 이씨 측 변호인을 사임하고, 일주일 후께 있을 구속적부

심 심사청구시에 다시 변호인을 맡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부시장과 구속된 이 전 국장이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해당 법무법인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향후 재판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등이 나온다.

임선숙 광주지방법변호사회장이 대표인 이우스는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이 고문을 맡고 있으며,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등이 소속된 지역을 대표 하는 법무법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공정성 의혹이 제기된 이후 특검감사를 거쳐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바뀌고,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도 사업을 반납해 2순위였던 한양건설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사대금 미납 갈등...남구청 상가 에스컬레이터 폐쇄

설치업체 “11억여원 못받아”

공사 대금 문제로 광주 남구청 상가의 에스컬레이터가 폐쇄됐다.

5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청 상가 공간인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쇠줄로 봉쇄됐다. (사진)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한 A씨가 공사대금 13억 8800여만원 가운데 11억여원을 받지 못했다고 불쾌한 것이다.

A씨는 구청에도 미납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에스컬레이터를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구는 건물 5층부터 9층까지 사

용하고 있다. 청사 내에는 총 9대의 엘레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A씨가 봉쇄한 에스컬레이터는 지하 1층-4층이 연결돼 있다. 건물 2층에는 커피숍, 3층에는 전자제품 판매장, 4층에는 가구점 등이 있다.

남구 관계자는 “공사 대금은 광주메가몰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에스컬레이터 폐쇄로 남구청 업무가 방해되지는 않고 있지만, 상가의 관리 주체인 캠프가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구청은 보건소가 있는 5층부터 남구의회가 있는 9층까지다. 민원실은 별관에 있어 에스컬레이터 봉쇄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사랑 담은 나눔박스 만들어요 5일 광주시 치평동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제2회 사회복지 나눔박람회'에서 행사 참가자와 봉사자들이 돌봄 이웃들에게 전달할 나눔 박스를 만들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초등학교 교실서 불...학생·교사 196명 대피

5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한 초등학교 3층 5학년 교실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났을 당시 해당 학급 학생들은 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받고 있어 교실은 비어있는 상태였다.

불은 교실 1개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옆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교사가 화염과 연기를 확인

하고 학생들의 대피를 유도했다.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사 등 196명은 모두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학교 측은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 모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소방 당국은 전자제품이 모여 있는 교실 창가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운전 시비 끝 주먹다짐 벌이다...음주운전 들통난 30대

광주서부경찰은 5일 운전 중 시비가 벌어 상대방과 주먹다짐을 벌이다 음주운전 사실까지 발각된 30대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35)씨는 이날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던 중 시비가 벌어진 B(25)씨 등 일행과 주먹다짐을 벌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음주운전으로 500m 가

랑을 이동한 A씨는 B씨와 주행 중 다툰이 생겨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주고받다 길 거리에 차를 세운 뒤, B씨 일행과 뒤엉켜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 일행은 A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65%로 나왔다.

경찰은 B씨 일행 역시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군산 등거너 살해·암매장’

2명 징역 16년·11년 확정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주범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는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9시께 전북 군산의 한 원룸에서 ‘정소를 하지 않았다’며 지적장애 3급 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작년 기술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폭행으로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여km 떨어진 야산에 묻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담보금 내고 풀려나

규정보다 총중량 그물을 사용,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이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5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7시 1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4.8km 해상에서 중국어선 148t 유망어선 A호를 탐망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19분께인 가거도 남서쪽 75.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144t B호를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어린 고기까지 잡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평균 40mm 그물을 사용, 어획물 7600kg 상당을 잡은 혐의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 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총 1억 6000만원을 징수한 후 5일 오전 석방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사다리까지 동원 환풍기 통해 가계서 담배 훔친 중학생들



○...담배가 떨어지자 사다리까지 동원, 가계의 환풍기를 통해 구멍가게로 들어가 담배를 훔친 중학교 3학년 세명이 절도 혐의로 경찰서행.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15)군 등 동갑내기 세명은 지난 29일 새벽 3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골목

길을 배회하던 중, 담배가 떨어지자 B(여·80)씨의 가계에 침입해 23만 원어치 담배 65갑을 훔쳤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세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A군을 뚫아태운 뒤 침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가져와 환풍기를 뜯고 내부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